

■ 이사장님 58호 소식지 글 쓰실 때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이번 소식지 58호에서는 5월에 시작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CJ홈쇼핑 모금방송관련 사업을 이달의 컨셉으로 잡고 기부자, 자원활동가, 모금 결과를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 사업의 중간평가를 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CJ홈쇼핑 모금방송은 그간 진행해왔던 모금방송과는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ARS 방식이 아닌 여성 재단의 지속적인 정기후원자를 발굴한다는 점, 그리고 직접 기부자와의 통화를 통해 작게는 기부자의 상황과 사연을 들을 수 있고, 크게는 한국 기부문화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진행해왔던 모금방송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 모금방송 결과

구 분		1차 모금방송(5월 28일)	2차 모금방송(6월 25일)
출연자	SPOT광고	문성근(영화배우)	인순이(가수)
	모금방송	문성근(영화배우), 장부용(은혜산부인과 원장)	정애리(탤런트), 문경훈(방송인)
총 콜수		322	356
총 모금액 수		115,168,000원	100,750,000원
※모금액은 1회기부, 1년, 2년, 5년 등 기부자가 원하는 방식 채택			

■ 1차 모금방송

5월 28일에 진행된 1차 모금방송에서는 총 350여명 참여, 1억2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다. 이는 동 일시간대 홈쇼핑 일반 판매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가장의 든든한 친구이자 후원자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해 주었으며 이는 나눔과 함께함을 소중히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들은 실직자이고, 같은 여성가장이며, 셀러리맨이고, 소녀가장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어 조금밖에 나누지 못함을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 저소득 여성가장도, 일용직 노동자도 따뜻한 온정의 후원 전화

6월19일 일요일 밤 8시 40분, 정적을 깨뜨리고 한통의 후원전화가 걸려왔다. 작은 목소리의 음성... 1만원 정기후원 의사를 묻는 상담실무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저... 저는 전화 한 통화에 2,000원씩 후원 하는 건 잘 알고 전화 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여성 가장이라 돈이 없어요.”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의

주인공 사연은 후원전화를 받는 상담자들을 경건하게 만들었다.
일용직 노동자라 딱 한번만 하려고 하는데, 뽕찰나는 아저씨의 음성.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후원 계좌를 물어오는 동남아시아계 여성.
정부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을 받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서 2,000원을 기부해 주신 아주머니.
나도 여성가장이라 어렵지만, 같은 아픔을 느껴 돕고 싶다는 어머니들.

■ 여성가장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향의 기초가 되길 기대

많은 여성가장들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임금·비전문직·비정규라는 삼중고의 직업과 소극적인 정부의 지원, 차상위계층이란 규제에 막힌 의료보호 등으로 만성적인 질병과 긴급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CJ홈쇼핑과 함께하는 “엄마에게 희망을” 모금방송은 민간에서 긴급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여성가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여성가장들에게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기로, 이후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향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홈쇼핑의 사회공헌활동 중, 특히 소외여성지원의 일환인 이번 <2005 CJ홈쇼핑 이웃사랑 캠페인“엄마에게 희망을!”> 모금방송은 11월까지 마지막 토요일에 고정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장님 원고는 7월 25일(월)까지 주시면 되구요,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연락주세요~**

여성가장 지원금
이런식으로
여러분께 드려요

● **박영숙 이사장님, 100인기부릴레이 특집호 인사말 관련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리더 참여>

- 영부인 권양숙 여사 참여

- 정부인사 참여

장하진(여성부장관), 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 조영황(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선욱(법제처처장), 서명선(한국 여성개발원 원장), 릴레이주자로 참여하신 곽결호(환경부장관)

- 각 당 국회의원 이꿈이 참여

열린우리당 김명자, 유승희, 이계안, 이목희, 이은영, 장향숙, 홍미영 / 한나라당 김애실, 이계경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 14

- 릴레이 되는 주자로 다수의 국회의원 참여

열린우리당 유재건, 김영주, 김부겸 / 한나라당 배일도, 박세환, 이주호, 정두언, 임태희, 박찬숙 / 민주노동당 조승수 / 자민련 이인제 의원 11

- 여성계 리더 이꿈이

김상희(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효선(여성신문사 대표), 박옥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오한숙희(여성학자),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윤정숙(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상덕(안성여자기능대학 학장), 이철순(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조현옥(여정치세력화연대 대표), 신숙희(우먼타임사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기업CEO의 참여

김성주(성주디앤디 사장), 이용경(KT 대표이사사장), 남중수(KTF 대표이사), 이수빈(삼성생명 회장), 신창재(교보생명 회장), 김승수(삼원코리아 대표이사 부회장), 심영섭(우림건설 사장), 김순진(㈜놀부 대표이사, 김정임(㈜ICPM 대표이사), 남승우(풀무원 대표이사 사장), 문국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등

- 팬들의 참여: 김미화, 이승철, 최재천 이꿈이 줄은 팬들로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특히 이승철 이꿈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참여로 소액의 기부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기부에 동참한 100인기부릴레이의 새로운 활력소

<100인기부릴레이의 총 참여인원 및 모금액>(6월 17일 현재)

참여 인원	현재 모금액
1500여명	현금 약 5천7백
	물품 7백여만원
	총 6천4백여만원

<릴레이 현황>

완주줄(42줄)

강지원, 고경일, 김근태, 김미화, 김성애, 김성주, 김순진, 김정임, 김형태, 김효선, 남승우, 남중수, 박승진, 박승철, 박영숙, 서명선, 신석교, 신숙희, 신창재, 심영섭, 왕인순, 오한숙희, 유승희, 유준상, 윤형봉, 이길여, 이성재, 이연숙, 이철순, 이승철, 이태수, 이현숙, 이희호, 장하진, 조형, 조선미, 조흥식, 지은희, 최귀례, 최재천, 한명섭, 한영

2년 연속 완주 예상 이품이(25분)

강지원, 김미화, 김성애, 김성주, 김효선, 김순진, 김형태, 박승진, 박영숙, 신숙희, 신창재, 심영섭, 왕인순, 이길여, 이성재, 이승철, 이연숙, 이태수, 이철순, 이현숙, 이희호, 조흥식, 지은희, 최재천, 한영

< 기타 >

- 2005년도 100인기부릴레이는 '행복한 가족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소외된 가족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기업, 민간 모두 긍정적으로 참여

- 특히, 5월 100인기부릴레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CJ홈쇼핑과 함께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여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모금방송이 5월 28일(토) 1차 진행되었음. 모금방송 후 최종 집계된 기부액은 1억2천여만원, 모금에 참여한 기부자 수는 350여명임.

- 박승철 헤어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전문 헤어디자이너 양성 프로젝트' 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가 MBC 일일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제작 장소 협찬을 계기로, 드라마 속의 금순이처럼 깨끗하고 당당한 여성가장으로, 전문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실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의 지켜나가기에 희망하는 현실 속의 금순이를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음. 현재 지원대상 모집, 선정하고 있는 단계

< 행복한 가족기금 이후 사용계획>

우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적 신화를 깨고,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무자녀부부가족, 노인부부가족, 비혼동거부부가족, 공동체 가족, 미혼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인식 개선사업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을 해소하는 인식 변화 교육사업
- 다양한 가족의 권리 옹호 및 홍보사업

또한 다양한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내 구성원 개인 및 구성원들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새가족 및 가족간 문화차이 적응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 자조집단을 통한 지지망 형성 사업
-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